

자활사례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자활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자활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은지¹, 조준용^{2*}

¹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²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Effects of the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on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Eunji Lee¹, Joon-Yong Jo^{2*}

¹Researcher,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Hallym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입관점과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한 자활사례관리 척도를 구성하고, 춘천지역에서 시장형 및 비시장형 자활사업단 참여자 142명에 대해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자활사례관리를 사회적 지지망과 임파워먼트 요인으로 구성한 뒤, 이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자활사례관리,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지지망 유형의 사례관리가 자활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단 유형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의 차별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화하는 자활환경에서 갈수록 강조되는 자활사례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사업단 유형을 뛰어넘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자활사례관리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제어 : 자활사업, 자활사례관리, 사회적 지지망, 임파워먼트, 정서적 자활

Abstract This is an empirical study that examines the effect of the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on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To this end, it created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evaluation scale utiliz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n a face-to-fac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142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in Chuncheon local self-sufficiency center. The results show that the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more specifically, the social support network components significantly affect the emotional self-sufficien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not only provide empirical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but raises the need for the expansion of social network type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Key Words : Self-sufficiency program,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Social network, Empowerment, Emotional self-sufficiency

*Corresponding Author : Joon-Yong Jo(joyhallym@hallym.ac.kr)

Received December 28, 2018

Revised January 29,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 제도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온 자활 제도는, 지난 18년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지속가능한 탈빈곤을 위한 핵심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로 자리잡아왔다[1,2]. 특히 전국 248개의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부 자활은 다양한 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및 가족지원, 교육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단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들에게 근로 유지와 동기 부여 및 다양한 노동시장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비시장형 사업단과, 근로능력과 동기가 회복되어 시장에서 적극적인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참여자들을 위한 시장형 사업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일자리를 위한 사업단들로 구성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에 대한 시각은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노동시장의 장벽을 제거하고 자립의지 고양과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는 비계량적인 효과가 크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을 통한 자활성공률이 여타 고용복지 사업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자활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3-6]. 특히 최근 들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확대와 함께 근로능력이 낮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대거 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로 투입되게 되었는데, 이에 더 이상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성과로만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규정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서 지역자활센터는 기존의 취·창업을 위한 고용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시도하는 데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7,8],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참여자들을 위한 자활사태관리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주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다[9,10].

한편 자활사태관리 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자활현장과 연구자들은 정서적 자활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내적인 변화와 같은 비경제적인 자활성과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정서적 자활은 자활제도 실행 초창기부터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주로 경제적 자활을 위한 경과적 개념으로서,

자립태도와 근로의욕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11]. 그러다가, 갈수록 악화되는 지역자활센터의 일자리 창출 환경 속에서, 정서적 자활은 자활의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의 하나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었고[9], 최근에는 이를 계량화된 지표로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12].

지금까지의 자활사태관리와 정서적 자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개념적 수준에 머물며 사례관리접근의 유용성에 대한 당위적인 제안 수준에 그치고 있다 [8,9,10,13]. 그러다보니 자활사태관리와 정서적 자활에 대한 정책과 실천현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최근까지도 아직 자활사태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 이는 ‘무정형성’으로 불릴 만큼 자활사태관리나 정서적 자활에 대한 조작적 정의나 계량화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14],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정서적 자활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이 실증연구로 이어질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자활사태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는 자활사태관리가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자활환경에서 취·창업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성과 이외의 자활제도의 성과를 발견하여, 향후 자활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통일된 개념이나 측정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활사태관리에 대한 척도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의 이론적 개념 관점에 따른 자활사태관리사의 수행과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자활사태관리 척도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정서적 자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로서 정서적 자활을 부각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활사태관리의 기능을 강조하여, 향후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지향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자활사업은 대표적인 근로연계복지제도로써 참여자에 대한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하는 ‘생산적 복지’로 인식되어 정부

와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과를 요구받아 왔다[1,2]. 서론에서 제시했듯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감소 추세의 자활대상자 탈수급률과 낮은 취·창업률이 주목한다[3,4].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자활센터의 평균 취·창업률은 7.44%이며, 취업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은 6.36%, 전체 탈수급자 중 취업을 통한 탈수급자는 13.7%에 불과했다[9]. 이와 반대로 지역자활센터가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했다는 시각은 자활사업이 기존의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심리·사회적 안정감, 생활의욕, 대인관계, 자활의지를 제고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6,15]. 특히 최근 들어 일자리 중심의 고용복지정책의 확대와 함께 복지부 자활참여자들의 근로 역량이 점차 낮아지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자활참여자들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을 다루는 정서적 자활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15].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 지표 중심의 성과 측정 방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참여자의 정서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현장과 학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16-21].

2.2 정서적 자활

정서적 자활은 “외부의 의존성을 탈피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립의지”로 정의되며[22], 자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구별되는 참여자의 내부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초창기 자활 연구자들은 정서적 자활을 자립태도 및 인식,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변화 측면에서 보기도 하였으며[5],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 적응, 안정적인 일자리, 자신과 가정의 일에 대한 적극성으로 조작화하기도 하였다[11]. 이후 다양한 연구자들이 정서적 자활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엄태영(2010)은 정서적 자활을 경제적 자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적 개념으로 정의하였고[23], 권민숙 외(2012)는 정서적 자활을 자신의 생활에서 긍정적 생각을 가짐으로써 근로의욕이 생겨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14]. 이러한 정의들은 정서적 자활이 단순한 자립의지라는 개념의 틀을 벗어나, 경제적 자활과 긴밀히 연관된 자활제도의 성과로 볼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이현주 외(2016)는 정서적 자활을 자활의 성과를 측정하는 여러 심리적 변수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듯 갈수록 정서적 자활은 자활사업의 성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

현재까지 성과로서의 정서적 자활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엄태영(2014)의 연구가 가장 포괄적인데, 그는 정서적 자활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 대인관계, 통제력, 일에 대한 생각, 자아상, 자립의지라는 여섯 가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현재의 어려움이 극복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 ‘대인관계’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통제력’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 ‘일에 대한 생각’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자신감과 일에 대한 보람, ‘자아상’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는 것, ‘자립의지’는 탈수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4]. 이러한 정의는 여전히 성과로서의 정서적 자활에 관심을 갖는 본 연구에 적합하여, 이후 본 연구는 정서적 자활 척도 구성에서 엄태영(2010)의 연구를 활용한다.

2.3 자활사례관리

2.3.1 자활사례관리의 개념

앞서 제시했듯 자활사례관리는 참여자의 근로기회 및 근로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복합적인 개인육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천방법으로 정의되며, 특히 노동시장 참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자활사업 고유의 경제적 성과인 취·창업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사례관리와는 다른[24] 자활사례관리의 특성으로 여겨진다[25]. 이에 따라 자활사례관리는 단순 고용서비스를 뛰어 넘어, 자활 참여자와 그 가족의 상황과 욕구에 대한 명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26].

이처럼 자활사례관리가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되고 활용되다보니, 자활사례관리는 시장형 혹은 비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은 있어 보이나, 반면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나 계량화된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자활사례관리의 ‘무정형성’이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14], 단순한 상담 횟수나 시간을 뛰어넘는 자활사례관리의 제 측면에 대한 조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활사례관리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례관리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개입 관점에 대한 논의부터 출발하여, 향후 개념의 조작화와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3.2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반

사례관리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하나로 실천학문의 성격상 여러 가지 이론적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다양한 체계를 종합적으로 사정, 활용할 수 있어 사례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태체계 관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임파워먼트 관점, 사회적 지지망 이론 관점[8,14]을 살펴보고, 이후 자활사례관리의 개입 관점을 논의한다.

먼저 물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는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으로써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즉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27].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관리의 실천은 임파워링 관계를 형성하는 것, 클라이언트 체계의 자원을 발굴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다. 사례관리사들은 클라이언트 체계의 내부·외부의 자원과 체계가 기능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환경 체계를 변화시키며, 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변화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생산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14,27].

한편 임파워먼트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 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문제대처능력, 탄력성, 재능, 관심, 지지망 등의 강점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14]. 사례관리사는 클라이언트와 동반자라는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확신하는 과정을 도우며, 정보 제공 및 교육을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확인, 해결하고 새로운 환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클라이언트의 역량과 자기지향성에 기여하게 된다[14,27]. 이러한 점에서 임파워먼트 관점은 생태체계 관점과 강점 시각을 동시에 포괄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망 관점에서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생존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내세우며, 클라이언트 및 가족과 연관된 공식·비공식자원에 대한 사정과 위기상황에서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례관리를 중시한다[27]. 또한, 파악된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이용하여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망 관점 역시 기본적으로 생태체계에서 다루는 환경속의 인간과 상호작용 개념을 포함하고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구분된 독립된 이론으로 보지

보다, 임파워먼트 이론과 사회적 지지망 이론은 아우르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3.3 자활사례관리의 이론 : 생태체계 관점 하의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지지망

전술한 논의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의 이론적 개입 관점은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임파워먼트 관점으로, 이는 자활사례관리에서도 자활 참여자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강점 관점에서 문제해결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자신의 역량과 자기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개입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지망 관점으로, 이는 자활 참여자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사정과 지지망을 활용하여, 자활참여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개입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2.4 자활사례관리와 정서적 자활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폭넓게 인정받아가면서 [28,29], 최근들어 자활사업에서도 정서적 자활 맥락에서 자활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자활참여자의 사회·정서적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한 단기적 노력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자활사례관이 자활참여자들의 근로의욕과 여건, 역량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났다[8]. 또한, 자활사업의 성과로 자활사례관리의 수행여부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과, 사례관리의 목표가 자활을 촉진하는 과정 목표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연구도 정서적 자활과 자활사례관리의 연관성을 강조한다[10]. 이 밖에도 정서적 자활 과정에서 사례관리접근이 유용한 것이라고 보는 제안들도 나타나고 있는데[7-10,13], 이러한 연구들은 아직 자활사례관리와 정서적 자활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 연구 수준이 아닌 방향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자활사례관리와 정서적 자활간의 논리적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활사례관리의 이론적 개입 관점과 실제 자활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의 개념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임파워먼트 중심 자활사례관리 관점의 경우 사례관리사는 자활참여자와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어 심리

적지지, 자활·자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며, 자활참여자의 강점과 자활참여자를 둘러싼 지지체계를 고려한 서비스를 연결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자활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이 교류하고 있는 지지체계 내의 강점을 발견하게 해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회복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 중심 자활사례관리의 경우, 자활 참여자의 목표를 위해 다양한 자원과 지지망을 활용하고, 자활참여자의 개인 통제감과 자존감 증진에 기여하는데[14,27,30], 이러한 점들은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개념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자활사례관리의 이론적 관점은 궁극적으로 정서적 자활의 제 측면과도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5 사업단 유형과 자활사례관리, 그리고 정서적 자활

한편 자활사례관리와 정서적 자활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자활 사업단의 맥락에서 재논의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활 실천 현장에서는 자활 참여자들의 근로역량이나 시장진출 가능성에 따라 이들이 참여하는 자활 사업단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유지형이나 사회서비스형과 같은 비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취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형 사업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나 동기가 저하된 참여자들이 참여하거나 적극적인 경제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있어, 논리적으로 사업단 유형에 따라 정서적 자활의 효과가 상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 높고 취창업을 통한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자의 경우, 개인 강점 중심의 정서적 자활 매커니즘보다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다양한 자원과 도움에 대한 가능성의 확인이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비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미약한 근로능력과 근로의지에 대해 강점 관점을 통한 역량강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론과 논리에 기반한 추론은 사실 아직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논리에 기반 가설에 대한 검증 형식으로 사업단 특성과 사례관리 유형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강원도 춘천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사례관리사업 모니터링 조사와 함께 이루어진 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자활사업단 참여자 142명이다. 이들 중 59명은 시장형 사업단에 참여중이고, 83명은 비시장형 사업단에 참여중이다. 연구자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들에 대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업단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일과후 참여자 거주지 근처를 찾아가서 대면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모든 설문 응답은 부호화되어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었고, 이후 통계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3.2 변수의 정의 및 연구가설, 연구모형

3.2.1 변수의 정의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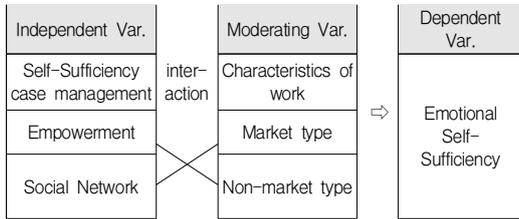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활사례관리 유형과 참여 사업단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를 이론적 사례관리 개념 관점에 기반하여 임과워먼트 및 사회적 지지망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심리적 특성, 조직 특성, 사업단 특성 등은 통제변수로 하였다. 끝으로 사업단 특성과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장형 사업단과 비시장형 사업단간에 자활사례관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해, 사업단 특성을 조절변수로 활용하였다. Table 1 은 앞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드러난 가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Table 1. Summary of Research Hypothesis

Research Hypothesis	Source
[Hypothesis1]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will increase emotional self-sufficiency	Oh et al. (2012)
[Hypothesis2] Empowerment type and Social network type will increase emotional self-sufficiency respectively	Kwon et al.,(2011)
[Hypothesis3] Empowerment type will be effective for non-market type participants, while social network type will work for market type participants	Theories of case management

3.2.2 연구모형

위의 연구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다.



Components	Control Variables
Demographic	gender, age, spouse, education, health, dependent family
Social, Psychological	self-esteem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work relevancy, colleague-support degree of satisfaction

Fig. 1. Research Design

아래 Table 2는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변수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Table 2. Research Design: definition of variables

Var	Definition of Variables
Dependent	Y' =emotional self-sufficiency
Independent	X ₁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X _{1a} =empowerment, X _{1b} =social Network)
Control	X ₂ =gender(dummy), X ₃ =age, X ₄ =spouse(dummy), X ₅ =dependent family, X ₆ =health, X ₇ =education, X ₈ =self-esteem, X ₉ =work relevancy, X ₁₀ =colleague support, X ₁₁ =deppree of satisfaction, X ₁₂ =work type(dummy)

Hypo	Regression Model	Type
Hypo1	Y' = α + β ₂ X ₂ + ... + β ₁₁ X ₁₁ + β ₁₂ X ₁₂ + ε (control design) Y' = α + β ₁ X ₁ + β ₂ X ₂ + ... + β ₁₁ X ₁₁ + β ₁₂ X ₁₂ + ε (independent var.model)	Hierarchical Regression
Hypo2	Y' = α + β _{1a} X _{1a} + β _{1b} X _{1b} + β ₂ X ₂ + ... + β ₁₂ X ₁₂ + ε	Types of case management
Hypo3	Y' = α + β _{1a} X _{1a} + β _{1b} X _{1b} + β ₂ X ₁₂ + β ₃ X _{1a} * X ₁₂ + β ₄ X _{1b} * X ₁₂ + ε	Interaction

3.3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는 이론적 사례관리 개입 관점에 따른 자활사례관리사의 수행과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체계

개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관점과 사회적 지지망 이론을 중심으로 자활사례관리 수행 요소들을 17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뒤, 학계 연구자 2인, 현장 실무자 2인과 함께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군집이 형성되지 않는 3문항을 제거하고 14문항의 자활사례관리 척도를 구성하였고, 이론적 개입관점과 일치하는 최종 척도에 포함된 임파워먼트 유형 문항은 8문항, 사회적 지지망 유형 문항은 6문항이었다(Table 3 참고). 이때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3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정서적 자활은 엄태영(2014)이 개발한 정서적 자활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엄태영(2014)은 자활 현장에서 사용되는 정서적 자활 개념을 담기 자유무,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요보호가족원 수를 몰았고, 사회심리적 특성으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조직 특성으로 업무적절성 4문항(엄태영(2009)의 척도), 동료와의 관계 14문항(김택호(2004)의 척도), 실무자 만족도 6문항(이예정(2003)의 척도), 사업단 특성으로 시장형(시장진입형)과, 비시장형(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 Scale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sort	questionnaire
empowerment type	1. Discussed employment (and capability) that I wished for.
	2. Discussed problems and solutions in searching employment.
	3. Discussed my capability.
	4. Discussed my future after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tion.
	5. Discussed my strong point in employment market rather than my weakness.
	6. Felf case manager as amy colleague who helps my employment.
	7. Received information that strengthens my capability in employment.
	8. Get education Educated that strengthens my capability in employment.
social network type	9. Case manager help me participate in various supportive network whil in self-sufficiency program.
	10. Was Encouraged, inspired and supported via various network.
	11. Discussed my family relations and supports.
	12. (Non formal supportive system) Discussed economic and emotional help from relatives, friends, and neighbors.
	13. Discussed my need that was not fulfilled despite various social network.
	14. Informed other kinds of services that are out of self-sufficiency center(utility discounts, scholarship... etc)

(Cronbach' α) : .923

3.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총 142부의 대면 설문자료를 통계 처리를 위해 PSA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참여 사업단의 특성에 따른 자활사례관리 유형의 영향을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조사대상자 총 142명의 특성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Table 4. Demographic & work Characteristics (N=142)

Var	sort	(N)	(%)
age	40 below	12	8.4
	40 ~ 59	92	64.8
	60 and above	38	26.8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48	33.8
	under high school	66	46.5
	above college	28	19.7
no. of dependent family	none	80	56.3
	1	39	27.5
	2 and above	23	16.2
helath	under average	108	76.1
	good	34	23.9
gender	male(=1)	53	37.3
	female(=0)	89	62.7
spouse	none(=0)	107	75.4
	yes(=1)	35	24.6
work	non market type(=0)	83	58.5
	market type(=1)	59	41.5

아래 Table 5는 조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조직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이중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는 21.39 (총점 35점 중)이고 최소값은 7점도 있어, 자활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적절성은 15.63, 동료지지는 48.95, 실무자 만족도는 21.80으로 나타났다.

Table 5. Psychological-Sociological &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N=142)

Var	Source	Ave	Std	Min	Max
Self-esteem	Rosenberg Likert (7Q) range(5-35)	21.39	3.3	7	29
Work-relevancy	Um(2009) Likert (4Q) range(5-35)	15.63	2.9	6	20
Colleague Support	Kim(2004) Likert (14Q) range(5-35)	48.95	10.9	14	70
Degree of satisfaction	Lee(2003) Likert (6Q) range(5-35)	21.80	4.0	7	30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의 척도의 경우, 평균은 46.6, 최소값은 14, 최대값은 68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정서적자활의 평균은 89.8, 최소값은 42, 최대값은 120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고).

Table 6. Descriptives of Major Variables

Var	Source	Ave	Std	Min	Max
self-sufficiency case-management	self-sufficiency case-management(Likert 14 Q)	46.6	10.5	14	68
	empowerment (Likert 8 Q)	26.9	6.2	8	40
	social network (Likert 6 Q)	19.7	5.1	6	30
emotional self-sufficiency	Um(2014) (Likert 25 Q)	89.8	14.0	42	120

4.3 상관관계분석

등간척도로 측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Table 7 참고) 정서적 자활은 자활사례관리와 교육수준, 요보호가족원 수, 주관적 건강, 동료지지, 실무자 만족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때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가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하고 있어 본 연구자는 통제변수로 사용된 실무자에 대한 만족도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상관관계가 .6을 넘지 않고, 개별 VIF와 공차 역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어서¹⁾ 분석모형에 그대로 투입하여 사용하였다.

1) 개별 VIF가 2.0이상이거나 개별 공차가 0.5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Table 7.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emotional self-sufficiency	1										
2 empowerment	.467**	1									
3 social network	.407**	.667**	1								
4 age	-.007	.096	-.098	1							
5 education	.256**	.033	.021	-.348**	1						
6 dependent family	.177*	.103	.181*	-.331**	.140	1					
7 health	.247**	.032	-.039	-.239**	.290**	.199**	1				
8 colleague support	.477**	.494**	.459**	.080	.152	.127	.060	1			
9 self-esteem	.073	.134	.157	-.053	-.077	-.034	-.274**	.048	1		
10 degree of satisfaction	.427**	.661**	.405**	.250**	-.101	.060	-.053	.518**	.061	1	
11 work relevancy	.151	-.048	-.096	.138	-.008	-.112	.048	-.011	-.138	.099	1

** p<.01, * p<.05

4.4 자활사례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는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사례관리 및 사례관리 유형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고, 자활사례관리와 사업단 특성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통계모형에 따른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Table 8은 [연구가설1]에서 제기한 자활사례관리의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모델1]에서는 독립변수를 제외한 통제변수만의 영향을 확인하고 있고, [모델2]에서는 자활사례관리 변수를 투입하였다. [모델1]에서는 정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요인만 확인할 수 있는데, 실무자만족도($\beta=.272, p=.001$), 동료지지($\beta=.260, p=.002$), 교육수준($\beta=.199, p=.010$), 주관적 건강($\beta=.173, p=.024$), 유배우자($\beta=.158, p=.036$), 자아존중감($\beta=.153, p=.032$)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값이 나타났다($R^2=.372$).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를 투입한 [모델2]에서는 자활사례관리($\beta=.255, p=.003$)가 종속변수인 정서적 자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입된 변수 중 β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료지지($\beta=.211, p=.009$), 교육수준($\beta=.191, p=.011$), 주관적 건강($\beta=.161, p=.031$), 유배우자($\beta=.166, p=.023$) 변수는 [모델2]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례관리가 정서적 자활 정도를 높인다는 [연구가설1]을 통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R^2=.405$).

Table 8. Effects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on emotional self-sufficiency

var	MODEL 1			MODEL 2				
	β	t	p	β	t	p	collinear	
							tol	VIF
case management				.255	3.01	.003	.58	1.72
male	.090	1.32	.189	.102	1.52	.129	.93	1.06
age	.037	.469	.640	.052	.682	.496	.70	1.42
edu	.199	2.62	.010	.191	2.59	.011	.76	1.30
dependent family	.054	.719	.474	.044	.597	.551	.77	1.29
health	.173	2.28	.024	.161	2.18	.031	.76	1.30
spouse	.158	2.11	.036	.166	2.29	.023	.79	1.26
self-esteem	.153	2.16	.032	.133	1.92	.057	.87	1.14
work relevancy	.123	1.77	.078	.147	2.17	.032	.90	1.10
colleag. support	.260	3.22	.002	.211	2.64	.009	.64	1.54
degree satisfact	.272	3.30	.001	.140	1.53	.127	.50	1.99
cons		.763	.447		.519	.605		
statistics		$R^2=.372$ $F=7.966, p=.000$			$R^2=.405, F=8.396, p=.000$ Durbin-Watson=1.930			

한편 Table 9은 독립변수인 자활사례관리를 임과워먼트 유형과 사회적 지지망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이 각각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2]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변수 중에서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 자활사례관리($\beta=.261, p=.01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우선, 자활사례관리는 일반사례관리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

적 배경에서 논의했듯이, 자활사레관리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목적 지향을 가지고 있어, 참여자의 강점을 증시하는 임파워먼트 접근 역시 최종목적인 경제적 자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의 능력과 강점을 강화하는 접근보다 도움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접근이 자활 참여자의 인식에 각인되어서, 정서적 자활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다양한 노동시장 장벽을 가지고 있는 자활 참여자들의 경우, 사레관리가 개인 강점을 강화하려는 임파워먼트 중심으로 서비스를 집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후속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자활사레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9. Effects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type on emotional self-sufficiency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 coef	t-value	sig.
	B	std	β		
empowerment	.067	.225	.030	.297	.767
social network	.716	.291	.261	2.45	.015
male	3.165	1.935	.110	1.63	.104
age	.098	.108	.071	.912	.364
edu	.805	.303	.202	2.65	.009
dependent family	.552	1.208	.034	.458	.648
health	2.424	1.029	.177	2.35	.020
spouse	5.867	2.385	.181	2.46	.015
selfesteem	.550	.292	.130	1.88	.062
work relevancy	.690	.328	.144	2.10	.037
colleague support	.233	.106	.182	2.19	.030
degree satisfact	.496	.315	.144	1.57	.118
constant	11.6	12.5		.926	.3
statistics	R ² =.468, revised R ² =.414, F=8.676, p=.000, Durbin-Watson=1.926				

끝으로 Table 10은 임파워먼트 유형의 자활사레관리는 비시장형 사업단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 유형의 자활사레관리는 시장형 사업단에서 각각 정서적 자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업단 특성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설3]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파워먼트×사업단(시장형=1)의 β =-.235, 사회적 지지망×사업단(시장형=1)의 β =.207로 나타나, 가설에서의 제시한 상호작용항에 대한 방향성은 지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통계적 유의도(p-value)는 모두

.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3]을 기각하였다. 이는 일단 자활사레관리의 유형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의 영향이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사업단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으로 본다면, 이는 사업단 유형과 관계없이 사회적 지지망 유형의 사레관리가 정서적 자활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본 연구가 시도한 사업단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현장에서의 실제로 구성되는 사업단 구분이 다를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시장형으로 구분된 근로유지형 참여자나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중에서도 시장형 진입을 염두에 둔 시장 지향성 참여자가 많을 경우, 이러한 논리적 사업단 구분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다양한 지역의 사업단 유형과 사레관리와의 상호작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ble 10 .Effects of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Interaction with work type

	non-standard coefficient		stand. coef	t-value	sig.
	B	std	β		
empowerment	.518	.319	.230	1.62	.106
social network	.785	.370	.286	2.12	.035
work type	1.813	9.79	.064	.185	.853
empower×work type	-.244	.497	-.235	-.49	.624
social network×work type	.293	.621	.207	.47	.638
constant	59.98	6.57		9.12	.000
statistics	R ² =.468, revised R ² =.414, F=8.676, p=.000, Durbin-Watson=1.926				

5.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자활사레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입관점과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한 자활사레관리 척도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과 임파워먼트 요인으로 구성하고, 강원 춘천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 142명에 대해 대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자활사레관리가 자활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정도를 높인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인 자활사레관리를 임파워먼트 유형과 사회적 지지망 유형으로 나누었을 경우,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자활사레관리만이 정서적 자활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유형에 따른 정서적 자활에의 영향이 참여자의 사업단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엇보다 최근 들어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주요한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활사례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 중심의 사례관리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사업단 유형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의 자활사례관리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도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즉, 자활참여자의 강점과 자활역량을 배양하여 정서적 자활을 도모하는 임파워먼트 중심 자활사례관리 보다는 경제적 자립이라는 최종목적을 위해 도움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중심 접근이, 자활참여자들의 정서적 자활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단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갈수록 참여자의 근로역량이 낮아지는 자활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경제적 자활 성과를 탈피한 정서적 자활 성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선행 연구로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례관리의 유형에 따른 효과성 검증을 통해, 자활에 적합한 사례관리 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의성 있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국 지역자활센터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가 자활사례관리 척도 구성 및 적용에 초점을 두고 추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에 국한하여 대면 설문을 실시하다보니, 외적 타당도를 희생한 점이 없지 않다. 또한, 자활사례관리 정도를 측정하는 기존 척도가 없어 연구자가 이론적 개념 관점과 참여자의 인식에 기반한 척도를 새로 구성하다보니, 내용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 척도의 불안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사업단 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장형과 비시장형의 구분과 실제 참여자들의 시장지향성이라는 속성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보다 엄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변화하는 자활 환경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로서 정서적 자활을 부각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자활사례관리의 기능을 강조

하여, 향후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 지향해야할 정책적, 실천적 방향성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 자활참여자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측면의 개입과 개인의 역량 고취를 위한 노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여자에 대한 명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자활사례관리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REFERENCES

- [1] S. Y. Kim. (2012). Collision between Welfare and Work in a South Korean Welfare-to-Work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64(3), 203-229. DOI : 10.20970/kasw.2012.64.3.009
- [2] D. M. Noh. (2010). Institutionaliz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 welfare to work. *History and philosophy of self-sufficiency movement, Chapter III* Seoul : KALSA.
- [3] J. W. Kim, M. K. Lee & S. N. Jeon. (2013). A Measure for System Improv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 Focusing on a Social Economy Development Strategy. *Journal of Critical Policy*, 38, 7-44.
- [4] T. Y. Um. (2014). A Study on Developing a Scale for Emotional Self Sufficiency. *Korea Social Policy Review*, 21(4), 81-102. DOI: 10.17000/kspr.21.4.201412.81
- [5] S. R. Lee & J. M. Jin. (2003).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ntipoverty Policy in Local Community : Focusing on the Self-Support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52, 241-272.
- [6] W. O. Jung & J. G. Kim. (2005). Subjective evaluation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8, 35-67.
- [7] MOHW & CSSF. (2015).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manual*. Seoul : CSSF.
- [8] M. S. Oh, M. K. Lee, C. A. Kim, K. A. Park & M. Y. An. (2013). *Self-sufficiency case management manual development in Gyeonggi*. Suwon : GGWF
- [9] H. J. Lee et al. (2016). *A Study on welfare-to-work participation situation: Panel study*. Sejong : KIHASA
- [10] M. Y. Hwang. (2013).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of the Case Management for Self-Sufficiency as a Social Work Practice for Welfare-to-Work. *Journal of Critical Policy*, 41, 219-248.
- [11] H. H. Lee & W. T. Cho. (2004). Factors Influencing Self-Sufficiency Effect of Workfare in the Self-sufficiency

- Promotion Agency, *Social Welfare Policy*, 20, 217-244.
- [12] S. M. Choi. (2018). A reconceptualization of self-sufficiency from a client-centered perspective. *Social Science Research*, 25(1), 98-124.
- [13] D. M. Noh et al. (2004). *A Study on the Policy Reform on Self-sufficiency Program*. Sejong : KIHASA
- [14] M. S. Kwon, Y. S. Yoon & G. S. Kim. (2012)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fare-to-Work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6(3), 435-454. DOI : 10.18398/kjlgas.2012.26.3.435
- [15] E. J. Lee. (2014). Factors Affecting Emotional and Social Self-Sufficiency of Welfare-to-Work Recipients: Focused Social Adaptation Program.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539-548. DOI : 10.14400/JDC.2014.12.2.539
- [16] T. W. Kim & J. H. Jeon. (2016). *A Monitoring Study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Field: Forum with Practitioners and Professionals*. Sejong : KIHASA
- [17] H. Y. Baek & S. E. Cho. (2012). The Changes of Welfare and Labor Market Status of Participants of Self-sufficiency Support Program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1), 143-178.
- [18] M. K. Lee. (2016). The Effect of the Changing Institution of the Self-Sufficiency Project on Its Participants and Policy Respons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6(1), 85-115.
- [19] S. Y. Lee. (2012).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20, 57-83.
- [20] Y. G. Lee & S. G. Kyung. (2017).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Incheon.
- [21] J. Y. Jo. (2013). A Longitudinal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th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 A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Korea Contents Society*, 13(10), 313-324. DOI : 10.5392/jkca.2013.13.10.313
- [22] K. S. Park & N. H. Park. (2001). *A Study on the poor single woman and the develop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Gyunggi.
- [23] T. Y. Um.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Self-Sufficiency to the barriers to Economic Self-Sufficiency among the Program Participa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2), 229-248.
- [24] S. Y. Min. (2017). Development of Case Management Activities Inventory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89-497. DOI : 10.14400/JDC.2017.15.4.489
- [25] M. Y. Hwang. (2016). A Bottom-up Conceptualization for 'Case Management for the Self-sufficiency' through the Thematic Analysis based on Experiences in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Journal of Future Social Welfare*, 7(2), 1-33.
- [26] S. M. Hong. (2006). Application of Case Management to Employment-Focused Progra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9, 133-165.
- [27] I. H. Jang. (2001). *Care-Case Management*. Seoul : SNU Press.
- [28] I. J. Song & S. S. Park. (2017). Content and Meaning of case Management Practice Success Experience of Regional Society Civil Case manag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455-463. DOI : 10.14400/JDC.2017.15.8.455
- [29] H. J. Kim. (2017). A Study on the Inhibiting Factors of Case Management in Child Welfare Facilities. *Korea Convergence Society*, 8(2), 183-196. DOI : 10.15207/JKCS.2017.8.2.183
- [30] Y. J. Kim. (2017). The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 for older women in rural area.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339-349. DOI : 10.15207/JKCS.2017.8.10.339

이 은 지(Lee, Eun Ji)

[정회원]



- 2016년 2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8년 8월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자활제도

· E-Mail : eunjilee930@naver.com

조 준 용(Jo, Joon Yong)

[정회원]



- 1999년 8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7년 12월 : U.C. Berkeley, School of Social Welfare(Ph.D)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정책, 빈곤, 자활

· E-Mail : joyhallym@hallym.ac.kr